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폐페트병에서 뽑아낸 재생섬유로 만든 업사이클링 티셔츠를 착용하고 업사이클링 인형을 손에 든 사진을 올려 의미를 더했다.

## 정의선, 脫플라스틱 ‘고고챌린지’ 동참

친환경차 확대부터 업사이클링 등 지속가능 사회, 친환경 실천 강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 ‘고고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고고챌린지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하지 않을 일 한 가지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약속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의 제안으로 고고챌린지를 함께 한 정의선 회장은 3일 현대차그룹 공식 페이스 북 채널에 글을 올려 “저와 현대차그룹은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플라스틱 줄이기, 좀 더 많은 업사이클링 제품의 사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 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와 수소캠페인도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플라스틱의 업사이클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하고 있다”며 “자동차 폐기물과 폐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한 패션 제품을 선보이는 ‘리스타일’ 캠페인을 매년 펼치고 있으며, 아이오닉의 라이프 스타일 경험공간인 스튜디오 아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폐 소재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과 디자인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은 이날 폐페트병에서 뽑아낸 재생섬유로 만든 업사이클링 티셔츠를 착용하고 업사이클링 인형을 손에 든 사진을 올려 의미를 더했다. 티셔츠는 ‘리스타일’ 캠페인에서, 인형은 스튜디오 아이에서 각각 선보인 업사이클링 제품들이다.

/양성운 기자

UDIO I를 통해 폐플라스틱 등 폐 소재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과 디자인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개한 전기차 아이오닉 5와 EV 6에도 친환경, 재활용 소재가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고고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누구보다 환경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을 추천한다”며 디자이너 김하늘 씨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김정태 대표를 지목했다.

디자이너 김하늘 씨는 벼려진 마스크를 모아 의자로 업사이클링하는 디자이너이며, 김정태 대표는 ESG 분야 소셜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를 이끌고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폐기물과 폐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한 패션 제품을 선보이는 ‘리스타일’ 캠페인을 매년 펼치고 있으며, 아이오닉의 라이프 스타일 경험공간인 스튜디오 아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폐 소재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과 디자인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은 이날 폐페트병에서 뽑아낸 재생섬유로 만든 업사이클링 티셔츠를 착용하고 업사이클링 인형을 손에 든 사진을 올려 의미를 더했다. 티셔츠는 ‘리스타일’ 캠페인에서, 인형은 스튜디오 아이에서 각각 선보인 업사이클링 제품들이다.

/양성운 기자

## 벤츠, 7세대 마이바흐-S클래스 출시 임박

올 여름 국내 공식 출시 예정  
벤츠 세단 부문 경쟁력 강화

새로운 마이바흐도 국내에 들어온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 여름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를 올 여름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가격은 2억6060만원이다.

우선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580 4MATIC을 시작으로 7세대 완전변경 모델인 더 뉴 S-클래스 라인업에 합류해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 세단 부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마이바흐는 크롬 처리된 핀을 장착한 보닛과 3차원 트림 스티어링이 세로로 배열된 라디에이터 그릴 등으로 마이바흐의 럭셔리함을 그대로 이어갔다.

특히 인테리어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럭셔리를 조화했다. 3D 디스플레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중앙의 12.8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포함해 총 5개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제공하고, 리어 액스 스티어링과 디지털 라이트 헤드램프 등 첨단 기술도 도입했다.

실내 공간은 더 뉴 S-클래스 롱휠베이스 모델보다 18cm 더 넓다. 이그제큐티브 시트와 쇼퍼 패키지를 기본 적용하며, 뒷좌석 에어백과 브랜드 최초 벨트 피더로 안전도 제고했다.

/김재웅 기자 juk@

# 파라메트릭 픽셀의 미래 감성에 대형 SUV 같은 놀라운 ‘공간감’



##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처음 적용한 ‘아이오닉5’.

아이오닉5는 글로벌 공개와 함께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한 모델이기도 하다. 전기차 시장을 독점해온 테슬라에 도전장을 내민것은 물론 전동화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사전계약에 돌입한 첫 날 무려 2만3760명이 아이오닉5를 선택했다. 국내 자동차업계 사전계약 역사상 최대 기록으로 지난해 출시된 기아 4세대 미니밴 ‘카니발’ 2만3006대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이 아이오닉5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낸것과 관련한 궁금증은 차량을 직접 주행하면서 하나씩 풀렸다. 시승 모델은 롱레인지 2WD 모델 프레스티지 트림(등급)으로 복합전비 4.9km/kWh이다.

첫 인상은 포니의 디자인에 현대차그룹의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적용해 과거와 미래가 공존했다. 파라메트릭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을 형상화한 아이오닉5 만의 디자인으로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 휠을 비롯해 전기 충전구에 다양하게 적용됐다.

측면은 디지털 디자인의 통일성을 이어가면서도 공기 역학구조를 고려한 문손잡이와 휠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다. 후면부는 창과 바퀴 중간에 적절히 배치한 후미등과 ‘IONIQ5’ 로고가 전체적인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완성했다.

실내 공간은 기대 이상이다. 아이오닉5 전장은 4635mm로 아반떼(4650mm) 보다 짧지만 축간거리는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팔리세이드에 맞먹는 3000mm를 갖추고 있으며 뛰어난 공간활용성은 매력적이다.

특히 차량에 탑승하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한 ‘유니버설 아일랜드’가 눈길을 끈다. 노트북이 들어있는 큰 가방을 넣어도 될 정도다. 기어노브도 운전대 오른쪽에 적용해 유니버설 아일랜드를 후석으로 밀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



현대차 아이오닉5 주행모습(위)과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사전계약 첫날만 2.3만대 돌파

국내 車업계 역사상 최대 기록

‘픽셀’ 형상화로 디자인 차별화  
유니버설 아일랜드로 공간성 ↑

새로운 시도 ‘디지털 사이드미러’  
아래쪽 위치해 적용없인 낯설듯

다. 대형마트나 좁은 주차장에서 운전석 쪽 공간이 부족해 조수석에 탑승해 자리를 이동할 때 불편함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주행성능을 경험하기 위해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 야외주차장을 출발해 경기도 남양주시 글램핑장 ‘더 드림핑’을 경유해 돌아오는 약 80km를 시승했다. 이번 시승에는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서울 강동구 현대EV 스테이션에서 충전 체험도 진행했다.

시동을 걸자 전기차답게 조용했지만 묵직한 주행감과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치고나가는 운전의 재미도 선사했다. 고속 주행에서의 핸들링과 코너링도 안정적이었다. 서스펜션은 너무 부드럽거나 딱딱하지 않았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무게 중심의 변화로 살짝 이질감이 느껴졌지만 크지 않았다. 또 센터 콘솔에 있는 암레스트는 길고 높아져 편안했다. 기

어봉의 허전함을 달랬다.

헤드업디스플레이(HUD)에서는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길 안내 화면에 더해 증강현실(AR) 시스템을 적용한 방향지시 표시가 나타나 운전을 더 편안하게 해줬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위치다. 기존 사이드 미러 위치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문을 여는 도어 손잡이 위에 모니터를 설치했다. 일반 차량의 사이드미러 위치보다 아래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습관적으로 유리창 밖 카메라를 주시하게 됐다. 특히 위치가 아래쪽이다보니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보면 전방 상황을 볼 수 없게 된다. 후면 주차시에도 공간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없어 힘들었다. 물론 디지털 사이드미러에 적응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처음 경험하는 운전자에게 낯설 것으로 보인다.

시승 중 강동EV 스테이션에서 초고속 충전도 체험했다. 배터리 용량 56%를 70%로 채우는데 약 7분이 소요됐다. 충전기 상단의 원형 램프에서 충전 정도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차량이 어느 정도 충전됐는지 쉽게 볼 수 있었다.

시승을 마친 후 복합전비는 8.0km/kWh로, 현대차가 밝힌 복합전비 4.9km/kWh를 훌쩍 뛰어넘었다.

/ysw@metroseoul.co.kr

## 컴투스 ‘백년전쟁’ 출시 3일만에 매출 50억

해외 매출 비중 전체 80%

국내에서도 인기순위 1위 달성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신작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이하 백년전쟁)’이 글로벌 동시 출시 이 후 3일째인 2일 정오까지 누적 매출 50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백년전쟁의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80%를 넘어섰다. 특히 절반 이상의

매출을 북미 25%, 유럽 27% 등 서구권 시장에서 거두고 있다. 한국에서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했고, 전체 매출의 19%를 기록했다. 아시아권(한국 제외)에서도 26%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한국, 프랑스, 일본, 독일, 대만 순이다. 컴투스는 백년전쟁이 전 세계 유저

